

# “농어촌 포교 더 방치해선 안 돼”

## 조계종 포교원, 포교정책연찬회서 제안

이웃종교에 비해 날로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계종 포교원이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농어촌포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51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는 각 지역 포교현장 활동가들이 나서 농어촌 포교의 현황을 짚고 포교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그동안 농어촌에 위치한 사찰은 농어촌이 도시화, 산업화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으며 포교기반을 상실하는 처지에 처했다”며 “특히 불교계는 사찰이 대부분 산중과 농어촌에 위치함을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포교를 방치해 이웃종교에 비해 더욱 포교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에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 포교 활성화를 위해 나설 것을 밝혔다.

광주전남전법단 지도법사 도제 스님은 ‘어촌포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에서 전남 신안지역 포교 실태를 통해

개척포교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제 스님은 “압태도, 비금도 등 신안 지역 사찰은 거의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며 “특히 육지와 떨어진 낙도 지역의 경우 일수록 기독교 세력이 장악한 불교신앙의 소외지역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도제 스님은 “이들 지역의 주민들 마음

### 농촌·사찰 주도 공동체 복원

### 어촌·개척 포교당으로 극복

### “도농 상생 프로그램 개발”

속에는 불교적 심성이 잔잔히 흐르며도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기독교계가 ‘개척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교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개척포교당’을 신설하고 ‘개척교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제 스님은 또 “매년 불교 행사도 진행하는 한편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제나 수륙제 등 불교행사를 통해 어촌인들의 불



도제 스님

선오 스님

교정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제 스님은 포교기반 조성을 위해 △사찰 주도 봉사활동 전개 △어린이놀이터 제공, 무료급식 등 생활형 포교 진행 △템플스테이와 교리지도 등 교육불사 △신행상담과 불교계유지시기운동 등 신행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진 정토사 주지 선오 스님은 “농촌포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에서 정토사를 비롯한 당진지역 포교실태를 통해 생활공동체의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오 스님은 “노령화로 인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향약, 품앗이 등 공동체 전통을 살리는 방향으로 농촌포교가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강좌 등을 적극 활용해 사찰이 주도하는 공동체 살리기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오 스님은 △다양하고 특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사찰음식 활용 프로그램 마련 △병원진료를 위한 차량 제공 및 심부름 대행 등 노령화 대비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체나 공익 행사 시 지원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08산사순례회를 통해 농어촌 포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선목 스님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농촌사랑실천운동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앞장서서 개발해야 한다”며 “불교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귀농지원 등에 나서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절로 포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교정책연찬회에서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과 수지행 남원 실상사 총무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 오현 스님 시조 ‘숲’, 교과서 수록

## 지학사 중1 국어 교과서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다 산은 골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는 겹겹질속에 별레를 기르며



이번 교과서 수록에 대해 김혜경(주)지학사 국어팀 부장은 “국어 교과서에는 글감이 중요하다. 오현 스님의 시조는 숲의 모습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며 “대표 저자인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직접 선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성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문화융성이 모든 정책 근본돼야”

### 자승 스님, 정부 신임인사 예방서 강조

박근혜 정부 신임 인사들이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은 정홍원 총리는 3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정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통합으로 불교계가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홍원 신임국무총리는 3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어 3월 11일 유진룡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방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정책 기초 중 문화융성이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교문화가 국

민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덕현 기자

## 템플스테이, 독일 관광박람회 우수 홍보관

### 6~10일 참가... 아시아대양주 부문 1위 기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국제관광박람회 ITB(The International Tourism Bourse)에서 우수 홍보관 아시아대양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독일 국제관광박람회는 세계 4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환대성, 관람객의 주목을 끄는 다채로운 이벤트, 관람객 대상의 활발한 홍보활동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선보인 인경 체험, 연등 만들기, 차담을 비롯해 특별 제작된 ‘템플스테이 다크이

인형전’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선’과 ‘차담’ 두 가지 주제로 제작된 다크이인형전은 스님과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실제 모습을 형상화한 귀여운 모습으로 현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홍민석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장은 “박람회 기간 내내 한글로 제작한 팔만대장경 인경체험과 스님과의 차담을 체험하기 위해 관람객이 인신인해를 이루어 한국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또 현지 여행사와 각국 관광업체의 요청으로 독일어 홍보물이 조기 소진되는 등 한국전통문화체험 콘텐츠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종일 기자



독일관광박람회에 설치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홍보부스 전경. 아시아 대양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 2만여 불자의 아침을 깨우다

### BBS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 1년... 5월부터 '시즌2'

불교방송 경전 문자서비스가 개시 1년 만에 유료 회원 2만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3월 15일 첫선을 보인 불교방송 문자서비스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5월부터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회원들을 찾아간다.

불교방송 측은 “많은 불자들이 1년에 한 두 번 사찰에 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만으로는 삶의 고(苦)를 털어내는 지혜를 증득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불자들의 갈증을 문자서비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문자 서비스”라며 취지를 전했다.

BBS 불교방송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5월에는 시즌2로 스님이나 사찰 단위의 다양한 범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교방송은 “시즌 1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방송은 지난해 3월 △불자들의 새로운 범문 문화 확산 △청장년 비불자들에게 거부감 없는 전법 등을 목적으로 유료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혜수 기자

## “찾아가는 레크리에이션 강좌 제공”

### 블레협, 사업계획 발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해만)가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해 범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연 2회 개최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해만, 이하 블레협)는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해만 스님과 3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해만 스님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맞춤형 포교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양성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블레협은 올해부터 블레협 2급 지도자과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4~6월과 9~11월 ‘범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지역별 지도자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나은 기자

## 불자 변영섭 교수, 문화재청장 내정

변영섭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사진)가 3월 15일 문화재청 청장에 내정됐다.



으로 활동 했다. 노덕현 기자

독실한 불자인 변 내정자는 평소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즐겨하며 불교계와 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내정자는 안동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1년부터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로 부임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미술사학회 장, 문화재청 전문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참선·지혜의 체험**      **활인선원**      **금강단식**

**3,6일간, 깨달음**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이대로 두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참선인가!**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참선인가!** 참선, 다시 해보자!

**참선** 수련회 6일 3월22일(화)~27일 4월19일(화)~24일 5월3일(화)~8일      선 회 3일 3월22일(화)~24일 4월19일(화)~21일 5월3일(화)~5일      깨달음이란? 머리가 논하면 둔한대로 머리가 흐리면 혼란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행복제작소**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1644-5266      자세한 내용은 [www.hwain.net](http://www.hwain.net)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 제2대 총무원장 曉圓能仁 취임



대륜불교조계종은 근본 가르침을 복원하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 위해 삼수삼행(三修三行)과 무차무애(無遮無碍)로 평등자비(平等慈悲)를 실천하는 청정승단(淸淨僧團)입니다.

수행을 원하십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오로지 수행만 하고자 하십니까?  
대륜불교조계종으로 오십시오.

입종문의는 종단홈페이지 참조 【 <http://www.arahan.org> 】